

## 실존 홍길동 연구



박 종 현

### 1. 홍길동을 연구하게 된 동기

전남(全南) 장성군(長成郡) 황룡면(黃龍面) 아곡리(阿谷理:일명 아치실 部落)는 필자가 태어나고 자라난 마을이며 또 543년간 24대를 한결같이 한집에서 살아오고 있는 곳이라서 애착이 남다르며 1965년도에 내 고장 전설이라는 이름으로 “홍길동의 유지”를 필자가 발표한바 있다.

---

약력 : • 78~81 체신부 전자계산소장 • 81~84 한국데이터통신(주) • 84~89 한국전기통신공사 전산계획실장 • 89~93 한국통신기술(주) • 93~95 한국통신 전산사업단 • 현재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 자문위원

이 마을에는 지금도 홍길동의 생가 터가 있고 홍길동이 직접 사용하였다는 “홍길동샘”이 있으며, 홍길동에 관한 전설이 여러모로 전해 오고 있었으나 그대로 전설로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사실만 위주로 기록을 남기는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조와 중종 조(연산군 6년 10/22, 10/28, 11/6, 11/28, 12/29, 중종 8년 8/29, 18년 2/10, 21년 1/5, 25년 12/28, 26년 1/1)에 강도 홍길동에 관한 기록이 있어 1981년도에 실존 인물로 확인된바 있다.

그러나 홍길동은 국문학적인 측면에서 “홍길동전”의 저자에 대하여 교수들에 의해 일부 연구가 있었을 뿐 적극적인 고증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음이 현실이었다. 그리하여 아직까지는 홍길동이 허균 작 홍길동전의 작중인물로 폄하(貶下)되어 전해오고 있을 따름이다.

조선왕조실록 이외에 고증이 어렵다면 전설의 터전이라도 기록으로 남겨야 하겠다고 생각되어 조그마한 비석이라도 세워 전설이라도 후배들에게 전하자고 추진하던 중 1987년 江原道 江陵市에서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의 외가가 강릉(江陵)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강릉에 홍길동의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건립하여 관광지 화 할 계획으로 홍길동의 캐릭터를 모집한다는 신문 고시를 접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장성군에서는 홍길동에 대한 고증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든 것이다.

## 2. 홍길동의 출생

삼한갑족(三韓甲族)인 남양 홍씨는 11세 홍규(洪圭:홍길동의 5대 조)의 두 딸이 충선왕비 명덕왕비(恭愍王의 어머니)가 되었고, 홍길동의 조부 홍징(洪徵)은 고려말 명재상(名宰相)이자 청백리로 6대에 걸쳐 왕을 보필했던 엄제신(廉 信:1304-1382)의 맏 사위가 되었는데 엄제신과 함께 戊辰慘禍로 참극을 당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참극을 모면한 파주 엄씨와 홍징의 넷째 아들 홍상직(洪尙直:洪吉童의 아버지)은 세도집안 외가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하고 남쪽으로 내려와 고창현(高敞縣)과 장성현(長城縣)에 그리고 외가 파주 엄씨는 나주에 터를 잡았다. (萬姓大同譜)

홍상직은 태조 2년(1393)에 왕의 시위 군에 발탁되어 태종 이방원이 관전하는 해온정(海溫亭)에서 활쏘기 1등을 차지하고 왕을 측근에서 모시게 되었으며(1409年 太宗實錄) 경성절제사(정3품)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에게는 아들 貴童과 逸童, 吉童 셋이 있었는데 洪逸童은 홍장사로 불렸을 정도로 장대했으며 후에 재상을 지내기도 하였으며 세조 10년 3월 13일 선위사로 홍주에서 술마시다 죽었으며, 셋째가 영웅 洪吉童이다. (조선왕조실록 및 만성대동보)

어느 날 洪尙直이 무등산이 바라다 보이는 사랑방에서 잠깐 졸고 있는 사이 누런 용이 자기의 품으로 파고드는 꿈을 꾸고 괴이하게 여겨 안방을 찾았으나 늙은 부인이 체통 없다고 거부하자 다시 사랑으로 나와 시중드는 계집종과 인연을 맺어 홍길동이 태어났다는 전

설이 전해오고 있다. (전설)

### 3. 홍길동이 집을 떠나게 된 사유

당시는 반상의 구별이 명확하여 서얼(庶孽)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높은 벼슬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숙종때 홍만종(洪萬宗)이 쓴 증보해동이적 해중서생(增補 海東異蹟 海東書生)편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옛적에 듣자니 국조중종 이전에 홍길동이란 자가 있었는데 이는 상신 일동의孽弟로 長城 亞次谷에서 살았다. 재기를 믿고 스스로 뽐내고 있었는데 국법이 벼슬이나 청현직에 나아갈 수 없도록 함에 억 매어 하루아침에 갑자기 도망하였다.”

(舊聞 國朝中宗以前有洪吉童者 相臣逸童孽弟也 洪逸童居長成亞次谷 負才氣自豪 而抱國典 不許科宦清顯一朝忽去後)

### 4. 활빈당

서얼 차별이라는 시대적 모순의 장벽을 뛰어 넘어 왕조의 신분 차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지배계급으로부터 갖은 핍박과 수탈을 당해 오던 민중을 구하기 위해 탐관오리를 응징하는 의적(義賊)으로 변신한 것이다. 영국 크롬웰의 공화정보다 150년이나 앞서 홍길동은 만민평등 천하공물의 활빈 대동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빈당의 무리

를 이끌고 공주의 무성산(지금도 홍길동의 산성으로 전해오고 있음)에 근거를 마련하고 의적활동을 하며 공동농장을 경영하여 자급자족의 공동생활을 영유하였던 것이다.

## 5. 실존인을 홍길동과 허균의 시공을 초월한 만남

교산집(校山:허균의 호)에는 5편의 글이 실려있다. 4편은 전부 한문이고 홍길동전만 한글판으로 기록되고 있어 일부 학자들은 홍길동전은 허균의 저술이 아니라는 근거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택당 이식(李植:1584-1647)이 남신 택당집 별집에서(허균이 수호전을 본떠서 홍길동전을 지었으며...)라는 기록이 있고 송천필담(松泉筆談)이나 증보 해동이적(增補 海東異蹟) 등에도 홍길동전의 저자를 허균으로 밝히고 있어 이는 거의 정설로 굳어지는 것 같다. 작가 문제는 500년이나 묻혀 있는 실존인물을 환생시키는데 역할이 크기 때문에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허균은 함열에서 1년간 귀향살이를 하였고 부안에서 2년간 전원생활을 한 바 있다.

인간의 평등의식을 갈파한 허균은 그의 유재론에서(세족으로 명망이 들어 나지 않으면 높은 벼슬에 통달할 수 없고 시골의 선비란 비록 재주가 있어도 벼슬에 오를 수가 없어서 비록 덕업(德業)이 훌륭해도 경상(卿相)에 오르지 못한다. 하늘이 부여한 재주란 모두 고르게 되어 있다. 고금을 통해서 오랜 세월이 지났고 세상이 넓지만 서열(妾의 子息)이라 해서 인재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내 듣지를 못하였노라)고 절규하고 있다. 홍길동전은 서출인 허균의 이러한 개혁

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6. 허균과 홍길동전

허균(1569-1618)은 조선 선조 때 문신으로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허염(1517-1580)의 3남3녀중 막내 서아들(庶子)로 태어나 서울 건천동에서 자랐다. 허균은 특히 기재가 뛰어나 수 차례의 과거에 장원급제하였으나 급힐 줄 모르는 대쪽같은 성격 탓에 다섯 번이나 파직을 당하기도 하였다. 결국은 50세를 일기로 반역죄라는 오명을 쓰고 능지처참 당해 생을 마쳤다. 그는 외가가 강릉이고 친가가 서울이었지만 부안의 명기이자 시인인 매창과의 애뜻한 사랑, 그리고 끈끈한 인간의식이 살아 숨쉬는 남도인의 삶, 특히 호남은 기축옥사(己丑獄死:1589)의 현장이며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으로 피폐한 곳이지만 줄줄이 흐르는 개혁세력의 억눌린 자의 아픔이 자신의 운명 과도 같은 동질감을 느끼며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을 설계하기 알맞은 곳이어서 파직중의 대부분을 호남에서 보냈던 것일까. 허균은 곳곳한 대밭으로 둘러싸인 홍길동의 유허를 확인하고 1백년의 시공을 뛰어 넘어 그때까지 생생하게 전해오는 홍길동의 무용담을 듣고 가슴 벅찬 감회 속에 홍길동전을 집필한 것이 아닐까?

## 7. 홍길동은 유구국의 국왕이 되었다.

허균의 홍길동전에서 울도국을 세울 때 휘하 장수 우두머리가 마숙 장군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누구일까. 중국 청나라 세종실록

(1547년 3월조)에는 조선에 표류한 마숙을 인도하라고 하지만 마숙은 중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조선사람도 아니며 화포를 가진 1천 여명의 무장한 괴한을 호령하는 우두머리라고 기록되고 있다. 앞의 여러 가지 사례를 감안하면 허균이 쓴 홍길동전은 픽션이 아닌 홍길동의 전기였던 것 같다.

海東異蹟의 저자 洪萬宗이 재상 鄭太化(1602-1673)를 만났는데 년초 중국 봉하사로 다녀올 때 인접국왕의 성(姓)이 봉하록(奉賀錄)에 洪자 밑에 水를 쓴 글자였는데 이가 洪字인 것 같으며 홍길동으로 의심된다고 기록한 바 있다. (王姓從洪下水 此何字也 或疑其爲吉童變姓)

이러한 글자 형태는 동양의 한문 문화권 중 월남과 유구 열도 등에서 취하였다고 함은 흥미 있는 일이다. 또 유구에는 고려인 사당이 있고 고려인 묘들이 있으며, 고려인이 만든 기와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홍가와라(洪家王)의 비석도 서 있는 것을 보면 유구 열도는 우리와는 떼어 내지 못 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절풍에 따라 여름에는 유구의 난파선이 서해에 내리고 겨울에는 난파된 서해의 선박이 유구로 흘러간 왕조실록을 참조하면 홍길동이 설정한理想鄉 울도국은 유구국임이 뚜렷하다.

이제 홍길동(洪吉童)은 허구적 소설의 주인공이 아니라 한국인을 대표하는 민중영웅(民衆英雄)으로 역사상의 실존인물(實存人物)임이 확인되었다.

역사에서는 반역자, 또는 강도로 기록하고 있으나, 소설에서는 봉건제도에 맞서 만민평등(萬民平等)의 이념으로 활빈당을 이끌었고, 이상국(오키나와의 울도국)을 건설한 인물이다. 역사상 홍길동은 조선 초 15세기 중엽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났으나, 신분이 첩의 자식이라 관리등용을 제한하는 국법 때문에 출세의 길이 막혔다. 좌절과 울분 속에서 출가하여, 양반으로부터 차별 받던 소외된 민중을 규합하여 활빈당을 결성한 후,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실천적 삶을 살았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핍박을 받던 중 관군에 체포되어 남해로 유배되었으나 탈출하여 무리를 이끌고 오키나와로 진출하였다. 그곳에서 조선에서처럼 민중의 공분을 대변하는 민권운동(民權運動)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 동안 홍길동의 역사적 실체가 왜곡되어 왔으나, 이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홍길동연구팀의 3년여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그 베일에 쌓인 비밀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는 홍길동의 생가 터가 사실대로 확인되었고, 홍길동은 소설속의 허구적 인물이 아니라 역사상 실존인물로, 반역자 또는 강도에서 민중의 영웅으로 부활하고 있다.

조선에서 배길로 3000리나 떨어진 일본 최남단의 섬 오키나와에서 후반부 삶을 살았던 그 곳에는 민권운동의 선구자 홍길동을 추모하는 기념비가 서 있다.

이러한 홍길동의 생애 전반을 재구성하여 정리하는 것은 500여년 전의 일본과 한국간의 교류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역사 바로알기 차원에서 일본과 한국간의 돈독한 우호관계의 정립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군에서는 홍길동을 완전히 고증하고 99. 5. 4일부터 제1회 실존인물 홍길동 축제를 성대하게 개최한바 있으며, 일본에서는 자료전시회를 현지에서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